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일·생활 균형 실천 선언문

전라남도 도민과 근로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친화문화를 널리 확산하여 남녀 모두가 일과 가정,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함께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남녀 모두의 일할 권리를 확보합니다. 고용상 성차별을 개선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를 지원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등 남녀 모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합니다.

하나,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된 유연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만듭니다. 직장에서는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정시퇴근과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권장하여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합니다.

하나, 마을이 사람을 키웁니다. 마을의 공유 공간을 돌봄 품앗이 장소로 활용하여 세대가 어울려 이웃 간 돌봄을 나누는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합니다.

하나, 남녀 모두의 아이 돌봄권리를 보장합니다.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고, 가사와 육아 참여를 장려하여 맞돌봄·맞살림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